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사역 소식: 2025 년 1 월

샬롬!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복음 전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굳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기로 했을까요?

지난 30 년 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으며, 이미 아셨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을 접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불신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그들의 회의적인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또한 압도적인 대다수의 유대인은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진짜로 거듭난 기독교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자, 십자군, 종교재판... 모든 기독교인은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때때로 사영리에 대한 책자를 누군가와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뒷받침되더라도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 등 주변 사람들과도 신뢰를 쌓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공감하고 일시적인 구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2025 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확장하고 주님의 왕국 안에서 선하고 지속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레리



발레리의 건강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을 때, 저희는 텔아비브 거리에서 발견한 그를 재활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난민으로 머물렀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노숙자가 되어 텔아비브 거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아무도 없으며,

하나뿐인 딸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습니다.

발레리는 저희가 도와준 데에 깊이 감사하며 복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열심히 경청하고 기도에 열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레리가 많이 먹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삼키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철저한 검사 끝에 식도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병원에 남아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들은 안타깝게도 발레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도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하고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감동이 된 것은 발레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 사랑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힘과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난 병원 예약 때도 언제나처럼 발레리는 기쁨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는 남다른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함께 기도했고, 분위기는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레리는 다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사발 예배에 그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즐기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을 읽는 모든 분들께 발레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힘 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미라*와 라나*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희 여성 쉼터 사역은 빠르게 전개되었고, 그 상황에는 함께 약 6개월 동안 살고 있던 두 명의 주민 라나*와 미라*가 중심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의 손에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쉼터를 찾아와 피난처와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 모두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한 여성은 폭음 경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저희가 입소를 받지 않지만, 이 경우 두 여성 모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미라*와 라나*는 저희와 함께 몇 달 동안 유익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재발을 경험하며 쉼터 내에 알코올을 들여와 마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중독에 걸린 여성들을 돕는 데 특화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미라*와 라나*가 모두 이스라엘 중부의 훌륭한 여성 재활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라나*가 사정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애초에 입소를 막았어야 했을까?'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까?' '그들이 우리 쉼터를 떠날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특별히 알코올이 그들의 개선에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재활 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언제 저희가 마음에 평안을 찾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두 여성이 새 보금자리에 정착하고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했을 때에야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받은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쉼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라나*는 저희에게 전한 메시지에 감동적인 말씀을 담았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워주신 기초 위에, 저는 새로운 삶의 벽을 벽돌 하나하나부터 쌓아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Aviv Ministry

dovbikas@gmail.com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 For more information and for dona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avivministry.com